

감염과 변이^{*}

—H. P. 러브크래프트의 소설과
『Project LC, RC』에 대하여

복도훈^{**}

1. 서론: 팬데믹 시대의 러브크래프트 소설 읽기
2. 진화, 역행, 퇴행: 감염과 변이의 의미
3. 러브크래프트 소설의 이중구속과 변용의 문제
4. 비하인드 언더스토리: 비체 크툴루, 식물 크리처, 공생하는 데이곤
5. 결론: 또다른 러브크래프트를 향하여

국문초록

이 글은 코로나19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한 감염의 공포와 인간 종의 급격한 위상 변화를 H. P. 러브크래프트의 소설과 『Project LC, RC』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 지구적 기이함이라고 할 수 있는 팬데믹 사태와 기후변화는 생태계 내에서의 인간 종의 지위와 역사를 근본적으로 되묻는다. 러브크래프트의 위어드 픽션에 등장하는 공포의 크리처와 우주적 무관심주의는 오늘날의 전 지구적 기이함을 밝히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동시대적이다. 그러나 러브크래프트의 인종주의는 그의 우주적 공포의 정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한다. 『Project

* 이 논문은 2021년 4월 24일 온라인에서 개최된 대중서사학회 학술대회 〈감염의 역사적 상상과 대중문화〉에서 발표한 초고를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조교수

LC, RC』는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서 논란이 되는 인종주의와 여성혐오를 다시 쓰는 문화적 변용의 작업이다. 변용은 러브크래프트적인 공포에 감염되면서도 그것의 변이를 창출하는 작업이다. 이 글은 우선 그러한 변용을 유도하는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이 갖는 창조적 힘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아래 이서영, 은림, 김보영의 러브크래프트 소설 다시쓰기의 의미를 비체, 식물 크리처, 공생의 이미지와 모티프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남근적인 공포를 환기하는 러브크래프트의 크리처는 여성주의적 다시쓰기를 통해 여성들의 절망을 끌어안고 위무하는 비체의 이미지(『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여성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식물적인 크리처(『우물 속의 색채』), 돌봄과 공생의 크리처(『역병의 바다』)로 뒤바뀐다. 이러한 다시쓰기는 노동, 돌봄, 연대와 같은 가치를 작품 속에 구현한다는 점에서 동시대적 의의가 있다. 결론에서는 앞서의 수정주의적 글쓰기로 축소되지 않는 러브크래프트 소설의 창조적 변용의 또 다른 힘에 주목하고자 했다.

(주제어: 감염, 변이, 기이함, 다시쓰기, 공포, 혐오)

1. 서론: 팬데믹 시대의 러브크래프트 소설 읽기

코로나19바이러스(SARA-CoV-2)로 인한 팬데믹을 맞이한 지 일 년이 넘었다. 80-120nm크기의 비가시적이고도 비감각적인 존재가 지난 1년 남짓 30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1억 5천만 명 이상의 감염자를 낳았으며, 지구행성 거주민 전체의 삶과 공동체의 거주와 이주 등을 비롯해 생활양식 전반을 모조리 뒤바꿔버렸다. 한편으로 지구촌 거주민들은 비대면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전보다도 한층 고립되는 한편으로, 코

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뉴노멀(new normal)의 삶을 함께 살고 있다는 공통감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공통적인 고립감은 단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에 불과한 것일까. 그것은 종으로서의 인간(human species)이 지구생태계로부터도 고립되어 있다는 뜻으로 확장 가능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비대면의 공통감 또한 종으로서의 인간이 비로소 생태학적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고립과 연결이라는 이 비대칭적인 기이함의 정체는 무엇일까. 인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그에 따른 생태계의 멸종 가능성의 임계점에 대한 인류세(anthropocene) 담론의 어두운 경고도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2020년 한해만 돌이켜 보더라도 전 세계는 팬데믹을 포함해 1,100만 헥타르의 면적이 불에 타고 1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의 생명을 앗아간 호주 산불, 10만 에이커 이상의 산지가 전소된 미국 캘리포니아의 맵캐트 산불, 러시아 캅차카 반도의 해양 생태계 파괴를 일으킨 독성물질, 중국에서 예멘에 이르기까지 5천만 명의 이재민을 낳은 홍수와 폭풍, 그리고 서남극의 빙상 및 남북극 영구동토층의 해빙과 붕괴 등 ‘전 지구적 기이함’(global weirding)으로 부를 만한 기후변화를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게 겪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더는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로 볼릴 수 없다. 상당수의 기후변화는, 코로나19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탄소연료를 기반으로 자본주의를 경영하는 인간행위자가 지구생태계에 가한 파괴와 서식지 침탈로 인한 되먹임의 결과이다. 코로나19바이러스 팬데믹 또한 장기적인 기후변화의 단기적인 국면에 가깝다. 기후변화로 인해 인간은 종으로서의 자신과 강제로 대면하고 있다. 세계(지구)는 더는 인간 편이 아니다. 세계는 지금 인간과 상관없는(non-correlative) 세계로, 세계 자체(world-in-itself)로 되돌아가고 있다. ‘인간의 세계’(world-for-us)

는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¹⁾

세계가 더는 인간의 세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실감, 인간 종이란 지금까지 무엇이었나 하는 의문, 기후변화와 같은 강력한 외적인 힘과 타격으로 인한 인간 종의 우연성에 대한 깨달음, 지구상 어딘가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일깨우는 인간 종 탄생 이전의 심원한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찰나와도 같은 인간사의 허무와 덧없음, 무엇보다도 인간을 포함해 생태계의 멸종에의 위기의식, 인간 없는 세계에 대한 공포는 H. P. 러브크래프트(H. P. Lovecraft, 1890~1937)의 코스믹 호러(cosmic horror)에서도 강렬하게 만날 수 있는 공포이기도 하다. 코스믹 호러의 라이트 모티프인 우주적 무관심주의(cosmic indifferentism), 곧 우주는 인간에게 선의를 갖지도 않고 악의적이지도 않으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기대와 관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유에 내재한 비인간주의는 얼마간 인류세적인 위기의식과 멸종에의 두려움에 내재한 인간 종에 대한 상대화, 사소화와 무관하지 않다. 러브크래프트의 ‘위어드 픽션’의 위어드(weird, 기이함)는 코로나19바이러스와 동숙하며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환경, 세계를 감싼 분위기를 적절하게 드러내는 용어이겠다.

‘형편없는 예술, 그것을 훑아대는 형편없는 취향이야말로 진짜 호러’라는 비평가 에드먼드 윌슨의 악명 높은 고전적인 폄훼²⁾와는 달리, 러브크래프트는 오늘날 ‘러브크래프트의 세기’라고 부를만한 명성과 악명을 함께 누리고 있는 작가이다. 러브크래프트는 한 작가의 이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오늘날 러브크래프트는 하나의 장르이자 문화산업을 가리키

1) 인간의 세계, 세계 자체, 인간 없는 세계(world-without-us)의 구분에 대해서는 E. Thacker, *In the Dust of This Planet: Horror of Philosophy Vol. 1*, Zero Books, 2011, pp.5-7.

2) E. Wilson, "Tales of the Marvellous and the Ridiculous", *Classics and Commercials: A Literary Chronicle of the Forties*, New York: Farrar Straus & Company, 1950, p.288.

는 일반명사가 되었다.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위어드 픽션)과 공포의 모티프, 크툴루(Cthulhu)를 비롯한 크리처는 〈스콘〉(Scorn, Ebb software, 2021) 같은 RPG 호러 게임에서 영화 〈에일리언〉 시리즈, 스티븐 킹에서 이토 준지에 이르는 뉴위어드 픽션과 만화, 주체를 상대화하고 객체를 조명하는 객체지향존재론 등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³⁾ 한편으로 역사적 인간으로서 인종주의자였던 러브크래프트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그의 작품에 대한 수정주의적 다시쓰기가 소설과 드라마 등의 각 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다.⁴⁾ 그 예로 2015년에 개최된 세계 판타지문학상은 러브크래프트의 흉상을 더는 수상자에게 수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 또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러브크래프트 소설에 대한 폭넓은 문화적 변용의 일부를 이룬다.

이 글은 러브크래프트의 코스믹 호러에 내재한 감염과 변이의 상상력이 갖는 시대적 의의를 검토하는 한편으로, 이에 대한 한국 작가들의 다시쓰기(rewriting/rewrite) 시리즈인 『Project LC, RC(Project Lovecraft, Recreate)』 가운데에서 이서영, 은림, 김보영의 소설에 나타나는 감염과 변이, 그 변용의 과정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⁵⁾ 그럼으로써 러브크래프트 소설의 감염과 변이에 내포된 의미와 문학적 변용의 사례가 동시대 현실에 시사하고 있는 바를 검토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3) 이에 대해서는 C. Sederholm & J. Weinstock, "Introduction: Lovecraft Rising", *The Age of Lovecraf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6, pp.1-42.

4) 소설로는 빅터 라발, 『블랙툼의 발라드』, 이동현 옮김, 황금가지, 2019; 맷 러프, 『러브크래프트 컨트리』, 소슬기 옮김, 은행나무, 2021. 드라마로는 〈러브크래프트 컨트리〉, HBO, 2020.

5) 『Project LC, RC』 시리즈의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알마, 2020; 출간순서에 따름). 송경아, 『우모리 하늘신발』; 김성일, 『별들의 노래』; 은림·박성환, 『뿌리 없는 별들(은림, 〈우물 속의 색채〉; 박성환, 〈공감의 산맥에서〉)』; 홍지운, 『악의와 공포의 용은 익히 아는 자여라』; 최재훈, 『친구의 부름』; 이수현, 『외계 신장』; 김보영, 『역병의 바다』; 이서영,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2. 진화, 역행, 퇴행: 감염과 변이의 의미

지금 인간 종은 돌연변이적인 특징에, 세포에 침투해 감염을 용이하게 하는 점액을 분비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고, 감염된 세포에서 필로포디아라는 촉수를 뻗으면서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기이한 동거를 하고 있다. 최소한 30억 년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해왔던 바이러스가 겨우 30만년의 역사를 살아온 호모 사피엔스를 대대적으로 숙주 삼고 있으며, 인간은 바이러스-인간으로 변이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바이러스는 세균과 같은 생명체와 달리 생명체가 아니라 물질(단백질)이다. 코로나19바이러스는 스스로 변이하거나 진화하는 생명체가 아니며, 세포 같은 숙주를 매개로 자가 복제를 반복하는 비생명체이다. 그것은 불안정한 RNA구조의 반(反)생명의 기생체인 한편으로 생명체 숙주를 매개로 활동하는 반(半)생명체이기도 하다.⁶⁾

코로나19바이러스는 감염과 변이가 가능한 생명체의 특징을 일깨우는 존재이지만, 그러한 의미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 코로나19바이러스는 체내 손상을 일으키는 미생물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물학적인 생태계에 인간을 전면적으로 재배치하고 있다. 인간은 바이러스가 아니지만 바이러스의 감염의 순환경로를 통해 그 정체가 얼마간 바이러스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바이러스 감염은 인간을 바이러스 숙주의 매개적인 존재로 만든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인간 신체는 호흡, 접촉, 기침 등을 통해 타자의 신체에 비말을 전파하는 감염의 신체가 되면서 바이러스의 신체로 변이한다. 감염의 공포는 이중적이다. 첫째, 실체로서의 인간에게 자신의 동일성을 깨뜨리는 감염의 공포는 다른 존재가 될

6) 바이러스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는 야마노우치 가즈야, 『조용한 공포로 다가온 바이러스』, 오시연 옮김, 하이픈, 2020 참조. 특히 34-35쪽.

지도 모른다는 변이의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둘째, 감염은 바이러스의 특징처럼 “죽어 있는 것도 살아 있는 것도 아닌 상태로 장기화되는 생명, 결코 완전히 죽지 않는 상태”⁷⁾로 존속하는 삶(생명)에 대한 공포를 인간에게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감염과 변이의 역학을 생태계에 끼치는 인간의 막대하고도 지속적인 영향과 관련 지으면, 바이러스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얼마나 끈질긴 것으로 드러났는지를 불편하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⁸⁾ 이쯤 되면 코로나19바이러스는 그동안 행위자(agent)로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독점해왔던 인간 종을 상대화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체와 객체, 신체와 환경, 공동체와 사회, 장소와 네트워크 간의 규범적 관계를 해체하고 재배치하는 강력한 행위력을 갖고 있는 ‘원형 행위자’(proto-agent)로 이름붙일 만하다.⁹⁾

이 글에서 의미하는 감염과 변이는 생물학적 진화론의 맥락을 내포하면서도 사회문화적인 의미망으로 그 외연이 확장되는 개념들이다. 일단 다윈의 진화(변이를 동반한 계승)의 관점에서 생명은 ‘변이를 수반하는 자력 증식’(self-reproduction with variations)이 가능한 존재, 곧 대사 활성을 하고 에너지와 적절한 환경을 통해 복제와 변이를 거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¹⁰⁾ 그런데 다윈의 자연 선택의 개념을 염두에 둘 때¹¹⁾, 생명체의 바이러스 감염은 한 생명체에게 개체군의 차이,

7) B. Woodard, *Slime Dynamics: Generation, Mutation, and the Creep of Life*, Zero Books, 2012, p.17.

8) B. Woodard, *Slime Dynamics: Generation, Mutation, and the Creep of Life*, Zero Books, 2012, p.16.

9) 이에 대해서는 김홍중, 「코로나19와 사회이론」, 『한국사회학』 제54집 3호, 한국사회학회, 2020, 169-171쪽.

10) 야마노우치 가즈야, 『조용한 공포로 다가온 바이러스』, 오시연 옮김, 하이픈, 2020, 89-90쪽.

11) “유리한 변이의 보존과 유해한 변이의 배제를 나는 자연 선택이라 부른다.” 찰스 다

나아가 종적 다양성을 확보하게 만드는 유리한 변이를 낳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할 수 없다. 감염을 통한 변이에 수반될 법한 인간의 공포는 점진적인 시간적 변화 대신에 급격하고도 우연적인 형태학적 돌연변이와 그와 연관된 기형(奇形)의 문화적 표현형으로 상상될 법하다. 물론 다윈 이후, 바이러스와 인간의 공진화는 인간의 유래만큼이나 오래되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상식이다. 그런데 현재의 코로나19바이러스 팬데믹과 그에 대한 인간의 공포는 인류세적 영향의 부산물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인류세에 대한 많은 정의는 공통적으로 인간이 자연에 미친 압도적인 지질적인 영향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을 기준으로 지난 50년 동안 지구의 지표면, 해양, 해안, 대기, 생물학적 다양성, 물의 순환 등에 인간 행위자가 초래한 변화는 어마어마해서 기존 자연계의 “자연적 변이”를 넘어서는 수준이다.¹²⁾ 코로나19바이러스 팬데믹 또한 자연적 변이를 초과하는 진화론적 격변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인간의 생명문화적인 공포로 은유화될 만한 사건이다.

자연적 변이를 넘어서는 돌연변이와 기형은 생명으로서의 인간 존재의 기이한 우연성과 그러한 우연을 가능하게 한 타자성을 인간 생명체 내부로부터 노출시킨다. 예를 들면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인간 아닌 다른 존재가 언제든지 주인으로 자리할 수 있는 숙주가 된다. ‘저주받은 생명’으로 이름붙일 수 있는 돌연변이적인 기형의 표현형은 유전과 성적 생산, 혈통과 계통에 따른 변이가 아닌 감염을 통한 변이를 구분하도록 이끌며¹³⁾, 전자의 관점에서 후자에 대한 공포를 전경화하도록 한다.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는 조상, 계통, 유전, 성적 생산과는 무관

원, 『종의 기원』, 장대익 옮김, 사이언스북스, 2019, 142쪽.

12) 엘 C. 앨리스, 『인류세』, 김용진·박범순 옮김, 교유서가, 2021, 62, 97쪽.

13)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천 개의 고원』, 김재인 옮김, 새물결, 2001, 453-459쪽.

하게 서식하고 증식하는 제3의 생명체(동물, 자연)를 러브크래프트의 소설 등을 사례로 들면서 논의한다. “계통 관계나 유전적 생산이 없는 서식, 전파, 생성을 어떻게 착상해볼 수 있을까? 단일한 조상이 없는 다양체는?”¹⁴⁾ 들뢰즈·가타리는 첫째, 인간이 자신의 이미지를 투사하는 나르시시즘적인 동물, 둘째, 다윈과 린네의 분류학에 어울리는 특성과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체와 종의 동물과 구별되는 것으로, 셋째, 흡혈과 침투로 인한 감염을 통해 서식·전파되며 생성·증식하는 악마적인 동물, 저주받은 생명, 자연을 횡단하는 자연을 탐구한다. 이 글의 맥락에서 들뢰즈·가타리의 제3의 생명체는 다만 철학적·문학적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자연적 변이’를 넘어서는 기이한 존재로 전유할 필요가 있는 실제적·은유적 존재이다.

그런데 러브크래프트의 크리처들은 들뢰즈·가타리가 명명한 제3의 생명체, 자연, 동물군(群)에 전적으로 어울리지는 않는다. 그것들은 들뢰즈·가타리가 진화(evolution)와 구별해 제시하는 신진화론적인 역행(involution), 창조적인 동물-되기의 사례에 부합하지 않는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덜 분화된 형태의 진화인 퇴행(regression)을 역행과 구분하고 있다. 이에 반해,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서 인간(소설의 서술자)은 크리처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퇴행에 가까운 생물학적인 변이를 증언하되, 그에 대한 매혹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공포는 크리처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존재론적 퇴행에 대한 강박으로 표현된다. 이 퇴행에의 공포는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편집증적인 집착으로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에 노골적으로 표출되는 인종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 『Project LC, RC』는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에서 비인간적 존재자에 의한 감염과 그에 따른 퇴행의 형태로 표현되는 우주적 공포와 그에 내재한 인종주의와 성차별주

14)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천 개의 고원』, 김재인 옮김, 새물결, 2001, 459쪽.

의에 대한 대안적인 다시쓰기 작업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작업은 다만 러브크래프트 소설의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다시쓰기 작업은, 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러브크래프트 소설에 내재한 창조적인 측면, 곧 후대 작가들로 하여금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 대한 다시쓰기를 유도하도록 이끄는 텍스트의 개방적인 차원과 무관하지 않다.

3. 러브크래프트 소설의 이중구속과 변용의 문제

그렇다면 이쯤에서 러브크래프트의 코스믹 호러에 대한 국내외 작가들의 다시쓰기, 문화적인 변이(변용)의 의미를 짐작해볼 수 있다. 문화적 변이로서의 다시쓰기는 러브크래프트 소설에 등장하는 크리처들과 인간(문화적 동질성의 편집증에 사로잡힌 백인 남성)의 기이한 절합, 퇴행에의 공포와 그에 내포된 현저한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에 집중하는 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시쓰기의 요청에 앞서서 러브크래프트의 소설과 관련하여 반드시 질문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은 어떻게 다른 어느 작가의 그것보다 그에 대한 다시쓰기를 비롯해 문화적 변용의 압도적인 사례가 되었는가? 무엇보다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은 다윈적인 자연 선택의 최상의 문학적 사례, 곧 그 어떤 작가의 작품보다 그가 작품 활동을 하던 동시대부터 ‘위어드 픽션’이라는 우점종의 풍부하고도 다양한 개체군을 낳게 한 주요한 동력이었다. 그렇지만 러브크래프트는 스스로를 자신의 작품에 군림하는 창조주로 간주하지는 않은 것 같다.

러브크래프트는 ‘위어드 픽션’ 계열의 수많은 작가와 긴밀하게 교류하

거나 함께 작품을 썼으며, 그의 작품들 또한 다른 작가들, 로버트 E. 하워드, 클라크 애슈턴 스미스, 앨저넌 블랙우드, 아서 매켄 등과의 상호적으로 창조적인 ‘영향에의 불안’ 속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러브크래프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독점적 권위를 가진 저자(author)가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들, 캐릭터들, 공식들의 창안자”이다.¹⁵⁾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 등장하는 중세의 미친 아랍 시인 압둘 알하즈레드의 저작 『네크로노미콘』은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서 단편적인 인용으로만 존재하는 가상의 책이다. 변용의 관점에서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은 『네크로노미콘』에 대한 부분적인 인용과 광범위한 주석, 해설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소설은 『네크로노미콘』이 단 두 권 소장되어 있는 가상의 미스캐토닉 대학과 실제의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책이 마치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믿도록 이끈다. 『네크로노미콘』과 같은 틈새 텍스트, 텍스트의 틈새는 그의 소설에 대한 독자와 작가의 개입과 쓰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유도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러브크래프트 소설에 대한 진정한 다시쓰기는 그의 소설에 대한 평면적인 수정과 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을 낳은 문화적인 변용의 열린 힘에 창조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러브크래프트의 크리처들은 ‘독립적인 존재들, 캐릭터들, 공식들의 창안자’인 러브크래프트 소설의 씨줄과 날줄을 이루는 가장 주요한 텍스처(texture)이다. 다윈의 진화론을 돌연변이 기형학으로 복제한 것 같은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는 오래되고 낡은 집의 지하의 축축하고 냉기서린 그늘에 서식하면서 생명체를 부패시키는 유독한 곰팡이와 지의류 등의 식물적인 크리처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것들보다도 훨씬 다양하고 풍

15) 마크 피셔, 『기이한 것과 으스스한 것』, 안현주 옮김, 구픽, 2019, 37쪽.

부하계도 그의 소설에는 인간 종의 탄생 훨씬 이전에 낫선 우주의 행성으로부터 지구의 극지와 사막으로 내려와 문명을 만들고 바다, 동굴 등을 포함한 지저세계에 서식하는 크툴루, 그레이트 올드원, 요고 쇼토스 등의 거대한 동물적인 크리처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러브크래프트 소설의 식물적·동물적 크리처들은 형태학적 특질로 변별될 뿐, 그 기능에서는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금단의 저택〉(1924)에 등장하는 식물 크리처는 곰팡이와 같은 균류, 수증기나 안개와 같은 기체의 형태와 인간의 윤곽 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어쩌면 그것은 완벽한 에너지의 형태—기체 혹은 외계 물질로 이루어진 형태—이거나 일부만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일 수 있었다. 성형력(成形力)을 지닌 미지의 복합체로서 고체, 액체, 기체 혹은 입자가 아닌 미세한 상태로 언제든지 모호하게 형태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는 바닥의 균류 무리, 노르스름한 기체 형태, 그리고 옛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무뿌리의 일그러진 모양들은 적어도 인간 형태와의 관련성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주로 혹은 영속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¹⁶⁾

한편으로 널리 알려진 러브크래프트의 동물적인 크리처, ‘문어와 용과 인간의 모습’이 뒤섞여 있는 크툴루는 〈크툴루의 부름〉(1926)에서 식물적인 크리처의 서식지인 진흙이나 그것의 특징인 악취, 덩어리, 거품을 공유하면서 출현한다.

괴물은 악마의 깔리온 선처럼 더러운 포말을 일으키며 높이 솟구쳐 있었다. 촉수를 요동치면서 흥측한 문어 머리가 견고한 앨러트 호의 앞쪽 돛

16) H. P. 러브크래프트, 〈금단의 저택〉, 『러브크래프트 전집』 2, 정진영 옮김, 황금가지, 2009, 50-51쪽.

대 가까이 솟구쳤지만, 요한센은 거침없이 배를 몰았다. 뿔뿔해진 부레가 터지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개복치를 갈라놓은 것처럼 진흙질의 더러운 물질과 천 개의 무덤이 열려진 듯한 악취, 어떤 연대기 작가도 기록하지 못할 핑음이 이어졌다. 배는 삼시간에 시큼한 악취로 더럽혀졌고, 녹색 덩어리로 뒤덮였다. 이윽고 선미 쪽에서 맹렬하게 부글거리는 소용돌이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맵소사! 바로 그곳에서 찢겨져 흩어졌던 별의 자손이 증오스러운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결합되고 있었다.¹⁷⁾

그런데 러브크래프트의 크리처는, 입자 상태에서는 식물적이거나 동물적인 크리처로 나뉘질 수 있지만, 파동 상태에서는 그러한 분리가 무너지는 차원의 존재임에 유의해야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현상을 뚫고 들어오는 저 너머의 초월적 본체가 아니라 현상 그 자체의 삼차원적이고도 물질적인 한계를 가리키는 형상이다.¹⁸⁾ 러브크래프트의 크리처들은 그에게 영향을 준 생태학의 주창자 에른스트 헤켈(1834-1919) 등 동시대 진화론의 생물도감에 묘사된 존재들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그러나 러브크래프트의 크리처들은 이후에 평면화된 캐릭터 상품으로 변용되지만 그 당시에는 전례 없는 것들이었다. 그것들은 다윈과 린네의 진화 및 형태학적 분류를 해체한다.¹⁹⁾ 또한 그것들은 흡혈귀나 늑대인간과 같은 전설적인 크리처들도 아니다. 소설가 차이나 미에빌이 말한 것처럼, “러브크래프트의 만신전과 동물 우화집은 절대적으로 독보적이다. 이 크리처들에 대한 난롯가의 전설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

17) H. P. 러브크래프트, 〈크툴루의 부름〉, 『러브크래프트 전집』 1, 정진영 옮김, 황금가지, 2009, 174-175쪽.

18) G. Harman, “On the Horror of Phenomenology: Lovecraft and Husserl”, *Collapse, Vol. IV: Concept Horror*, R. Mackay (ed.), Urbanomic, 2010.

19) 러브크래프트 소설의 우주론과 헤켈의 생태학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S. T. Joshi, *I am Providence: The Life and Times of H. P. Lovecraft*, Hippocampus Press, 2013, p.373.

다. 우리는 이전에 이 크리처들에 대해 들어보거나 본 적이 없다.”²⁰⁾

러브크래프트의 우주론적·지질학적 생물학은 인간적 열망과 관심이 우주에서는 한낱 우주적 입자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강력한 허무주의적 통찰에 입각해 있다. 미셸 우엘벵이 썼듯이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서 “우주란 소립자들의 순간적인 배열에 지나지 않는다. 카오스를 향해 가고 있는 과도기의 형상인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혼돈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그때면 인류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다른 종들이 나타날 것이며, 이후 또다시 차례대로 사라질 것이다. 생명력을 절반은 잃어버린 별들에서 희미하게 새어 나오는 빛줄기만이 얼음처럼 차갑고 텅 비어버린 하늘을 가로지를 것이다. 그리고 그 별들 또한 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²¹⁾ 그러나 한편으로 우엘벵은 러브크래프트 소설의 시적 매혹을 뒷받침하는 우주론과 생물학이 그의 인종차별주의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인, 흑인부랑자, 아랍 선원, 혼혈 이주민 등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공포가 표현된 〈레드 호의 공포〉(1925)가 시사해주는 것처럼, 러브크래프트의 작품 속에서 “한 편의 시처럼 매혹적인 최면의 상태를 만들어낸 것은 다른 인종들을 향한 혐오의 감정이었다. 저주받은 문장들의 광란한 리듬감이 요동치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끔찍한 재앙에서나 일어날 법한 굉음과 함께 환하게 밝혀 주었던 것 또한 그러한 인종 혐오의 감정이었다.”²²⁾ 우엘벵의 표현은 러브크래프트에 대한 국내 작가들의 변이적인 읽기와 다시쓰기에도 일종

20) C. Miéville, “Introduction”, *At the Mountains of Madness: The Definitive Edition*, New York: The Modern Library, 2005, pp.VII-VIII.

21) 미셸 우엘벵, 『러브크래프트: 세상에 맞서, 삶에 맞서』, 이채영 옮김, 필로소픽, 2021, 47-48쪽.

22) 미셸 우엘벵, 『러브크래프트: 세상에 맞서, 삶에 맞서』, 이채영 옮김, 필로소픽, 2021, 176쪽.

의 이중구속(double bind)이 선재해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이중 구속은 러브크래프트의 흉상을 거부한 2015년의 세계판타지문학상 수상식을 둘러싼 논란에서 (뉴)위어드 장르를 둘러싼 논쟁, 『Project LC, RC』의 수정주의적인 다시쓰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걸쳐있다. 그렇다면 러브크래프트의 코스믹 호러의 표준화된 표현으로 널리 인용되는 다음 문장은 그의 소설의 우주적 비전과 역사적 맥락이 한데 얹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감정은 공포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것이 바로 미지에 대한 공포이다.”²³⁾

물론 러브크래프트의 우주적 공포와 역사적 공포 둘 중 어느 하나를 외면하거나 중화한다고 해서 작품의 독성이 해소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Project LC, RC』시리즈의 경우는 어떤가. 전반적으로 평가해볼 때 이 시리즈는 러브크래프트 소설의 인종주의 또는 성차별주의에 대한 중화와 그의 소설의 공포를 다른 정서로 대체하는 등의 다시쓰기가 현저하다.²⁴⁾ 문학적 성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엘벡이 말했던 러브크래프트의 시적 비전의 이중구속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다만 인종주의·성차별주의에 대한 메시지적인 측면에서의 교정이 다분하다고 하겠다. 이것은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 대한 다시쓰기의 작업이 ‘독립적인 존재들, 캐릭터들, 공식들의 창안자’로서의 러브크래프트 소설에 내재한 풍부한 역량과 잠재력을 과소평가한 결과일 수 있다. 적어도 러브크래프트 소설 특유의 개방적이고도 잠재적인 역량만큼은 그의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의 결과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한 작가와 장르에 대한 다시쓰기가 원전의 핵심에 대한 전유, 지역적인 소재 및 작가 고유의 목소리가 결합된 결과라고 할 때, 『Project LC,

23) H. P. 러브크래프트, 『공포 문학의 매혹』, 홍인수 옮김, 북스피어, 2012, 9쪽.

24) 복도훈, 『밤의 공포보다 긴 촉수들』, 『자음과모음』 2020년 여름호, 96-109쪽 참조.

RC』시리즈의 몇몇 작품이 부분적으로 흥미로운 성취를 이루는 것도 사실이다.

작가가 직접 명시를 한 것을 포함해 『Project LC, RC』의 작품들이 가장 많이 참조하고 변용을 시도한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은 〈크툴루의 부름〉, 〈현관 앞에 있는 것〉, 〈인스머스의 그림자〉이다. 〈크툴루의 부름〉은 러브크래프트의 크리처의 대표격인 크툴루와 그 괴물이 주는 공포의 정동이나 이미지와 관련해 선택된 작품으로 보이며, 〈현관 앞에 있는 것〉은 러브크래프트 소설의 여성혐오와 관련되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작품으로 선별된 것으로 보인다. 〈인스머스의 그림자〉는 〈레드 혹은 공포〉와 비슷하게 러브크래프트 소설의 인종주의적 공포와 관련하여 자주 회자되는 작품으로 선택되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Project LC, RC』시리즈에 대한 문학적·비평적 평가의 보다 자세한 근거는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까.

러브크래프트 소설은 무엇보다도 그의 소설에 대한 장르적 명칭인 ‘위어드 픽션’의 위어드(기이한 것)의 핵심적인 특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러브크래프트의 시적 비전에는 우주적인 것과 인종주의적인 것이 기이하게 공존하고 있다. 러브크래프트는 위어드 픽션을 읽는 독자에게 진정으로 기이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 “설명할 수 없는 외계의 힘에서 나오는, 숨 막히는 분위기를 띤 공포”, “심각하고 불길한 암시”, “깊이를 알 수 없는 우주의 악마와 혼돈의 공격”이 “불변의 자연 법칙을 깨뜨리거나 정지시키는 것”. 그러면 독자의 편에서 진정한 위어드 픽션에서 감지할 수 있는 미적 효과는 무엇인가. 그것들은 “독자에게 심원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지, 미지의 장소 내지는 힘과 접촉하는지, 우리가 아는 우주 가장 외곽에서 온 존재와 외계의 형상이 벽을 긁어 대거나 검은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를 경외 어린 심정으로 듣는 듯한 묘

한 자세가 느껴지는지”이다.²⁵⁾ 그렇지만 후대의 독자와 작가가 러브크래프트가 선별한 위어드적인 것의 핵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이 글의 관점에서 『Project LC, RC』의 부분적으로 뚜렷한 성취는 러브크래프트가 『위어드 픽션 쓰기에 대한 노트』에서 언급한 분위기의 창조와 적잖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위어드 픽션이 가장 원하는 것은 행동이 아닌 분위기(atmosphere)이다. 사실, 경이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특정 유형의 인간의 기분에 대한 생생한 묘사뿐이다. 다른 무엇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싸구려에, 유치해지며, 설득력이 없어진다. 미묘한 암시 곧 기분의 명암을 표현하고 비현실적인 낯선 현실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형성하는 감지할 수 없는 힌트와 선택적으로 연관된 세목(細目)의 손길을 강조해야 한다. 지속되는 색채와 상징의 구름 이외의 실체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노골적인 열거는 피해야 하겠다.”²⁶⁾ 다시 말해 기이한 분위기를 창출하려는 대신에 그러한 분위기를 다른 정서나 의미로 대체하려하거나 특정한 주제의식이거나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열거하는 경우가 문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러브크래프트에 대한 문화적 변용은 러브크래프트적인 공포의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감염되면서도 그것의 변이를 창출하려는 힘겨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4장에서는 『Project LC, RC』에서 비교적 우수한 성취를 이뤘다고 평가할 만한 이서영의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은림의 〈우물 속의 색채〉 그리고 김보영의 『역병의 바다』가 러브크래프트에 대한 다시쓰기를 시도한 결과에 주목하려고 한다. 앞에서 위어드 픽션의 핵심에 있는 분위기

25) H. P. 러브크래프트, 『공포 문학의 매혹』, 홍인수 옮김, 북스피어, 2012, 15쪽.

26) H. P. Lovecraft, “Notes on Writing Weird Fiction”(1937),
(<http://www.hplovecraft.com/writings/texts/essays/nwwf.aspx>.)

를 강조했는데, 이 분위기는 다시금 『Project LC. RC』에 공통된 ‘지역적인 소재’라고 할 만한 여성혐오(『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우물 속의 색채〉)와 인종혐오의 현실(『역병의 바다』)과 비판적으로 결합하며, ‘작가 고유의 목소리’(『낮은 곳으로 임하소서』에서 공감과 반감이 교차하는 서술자의 목소리, 〈우물 속의 색채〉의 식물적인 크리처에 대한 서술자의 묘사와 어조, 『역병의 바다』를 관통하는 무심과 무상의 어조)를 통해 교정되기에 이른다.

4. 비하인드 언더스토리: 비체 크툴루, 식물 크리처, 공생하는 데이곤

이서영의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은림의 〈우물 속의 색채〉는 각각 러브크래프트의 대표적인 크리처로 점액을 뿜어내는 촉수로 가득한 동물적인 크툴루의 이미지에 대한 여성주의적인 전유를 시도하거나 버섯, 포자와 같은 식물적인 크리처를 대항 이미지로 내세우는 작품들이다.²⁷⁾ 그리고 김보영의 『역병의 바다』는 러브크래프트의 크리처가 제 공하는 황홀한 공포의 이미지를 앞의 소설들도 얼마간 공유하는 공생(symbiosis)의 이미지와 모티프로 바꿔 쓰는 소설이다. 세 소설 모두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서 주인공(남성)이 크리처와의 접촉에 전율하면서 위축되는 공포를 다른 각도로 응시하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와 『뿌리 없는 별들』의 대부분의 스토리 그리고 『역병의 바다』의 일부 에피소드는 지저세계(underland)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

27) 두 소설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간략하게 검토한 바 있다. 복도훈, 『2020년, 호러 한국』, 『문학사상』 2020년 9월호, 17-22쪽.

을 보인다. ‘비하인드 언더스토리’²⁸⁾로 부를 만한 세 소설의 서사적 모색 가운데 이 글은 우선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와 〈우물 속의 색채〉에서 러브크래프트적인 괴물물에 대한 전유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는 세세계 백화점의 지하에서 올라오는 악취의 원인을 찾기 위해 파견된 여주인공 ‘슬’과 그녀의 직장 여성 동료들이 겪는 부당한 노동과 차별이 소설에서 ‘빈오재’(汚災, 작가의 말을 빌리면, ‘보장내’의 애너그램으로 ‘암컷의 더러운 재앙’이라는 뜻)로 불리는 미지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음을 이야기한다. 빈오재는 세세계 백화점이 식민지 조선에서 미츠코시 백화점이었던 1930년 언저리에 탄생한 지하 괴물이다. 러브크래프트적인 화자를 방불케 하는 광인 노인이 증언하는 것처럼, 빈오재는 1930년대 당시에 백화점에서 일하던 여성들의 고통과 관련되어 있으나, 세세계 백화점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여전히 겪고 있는 공포로 역사화되는 괴물이다. 이서영의 소설에서 러브크래프트의 크툴루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노동착취와 차별은 여전한 백화점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원한을 응축하며, “독이 뚝뚝 흐르는 축수로 모든 것을 감싸 올려 세상에 적합한 형벌을 내리”²⁹⁾ 비체(abject, 卑體)의 괴물 빈오재로 전유된다.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는 무엇보다도 크툴루의 끈적이는 축수에 들러붙은 악마적인 이미지 맞은편에 여성들의 절망을 파스하게 감싸는 빈오재의 이미지를 상세하게 제시한다.

그 빛나는 눈 속에 오래된 건물의 원한, 원한이 빚어낸 단단한 고집, 금

28) 산림생태학 용어 ‘하층식생’(understorey)에 대한 은유적 용법인 언더스토리(understory)는 “서로 뒤엉켜 나무와 숲에 문화적으로 다양한 생명을 부여하는 언어, 역사, 사상, 그리고 그들이 얹히고설켜 날로 풍성해지는 이야기들”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로버트 맥팔레인, 『언더랜드』, 조은영 옮김, 소소의책, 2020, 99-106쪽. 인용은 106쪽.

29) 이서영,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알마, 2020, 113쪽.

간 벽돌 사이로 쏟아지던 슬픔, 그 자리에서 모멸을 견디던 이들의 절망, 망가진 허리와 무릎, 보지 썩는 냄새와 피 묻은 속곳, 개집들의 수치 끝에 마음 곳곳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사람들의 모습들이 커져이 쌓여 있었다. 빈오재는 노란 눈으로 슬을 바라보며 축수로 슬의 몸을 푹 감싸 안았다. 축수에서 나오는 하얀 농이 슬의 몸 구석구석으로 거품처럼 밀려들어왔다. 슬은 빈오재의 막 속에 들어와 있었다. 빈오재의 몸이 슬의 몸과 뒤섞이자 냄새도 아득하게 멀어져 갔다. 빨판들은 아주 평온하게 슬을 포옹하면서 고통으로 가득한 세계를 몸속에 직접 전해주었다.³⁰⁾

크툴루를 빈오재로 전유하는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를 읽다보면 도나 해러웨이가 크툴루(Chtulhu)의 철자 'h'를 탈락시키고 쉼루(Chthulu)로 바꿔 쓰면서 그러한 바꿔 쓰기를 '감염'으로 간주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또한 인류세라는 기표 대신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이어 붙여서 있을 법하지 않은 연결들을 만들어” 내는 부드럽고 따뜻한 “축수적 사유”의 힘들을 결집하는 쉼루세(Chthulucene)를 고수하는 대목도 연상된다.³¹⁾ 한편으로 축수적 사유의 힘들 중 하나인 해러웨이의 ‘공-지하의’(sym-chthonic) 마력적인 힘은 이서영의 소설뿐만 아니라 은림의 〈우물 속의 색채〉에서 땅의 표면과 아래, 주변을 이루는 식물적인 크리처의 네트워크에 대한 탐험과도 연결된다.

〈우물 속의 색채〉는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에서 새어나오는 정체불명의 빛으로 인해 나뭇잎과 가축 등을 돌연변이적인 쇠락과 죽음으로 한데 몰아넣는 러브크래프트의 〈우주에서 온 색채〉를 다시 쓴 소설

30) 이서영,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알마, 2020, 119-120쪽. 부분적으로 생략하면서 인용함.

31) 도나 해러웨이, 『인류세, 자본세, 대농장세, 톨루세—친족 만들기』, 김상민 옮김, 『문화과학』 2019년 봄호, 특히 166쪽. 인용 부분은 최유미, 『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도서출판b, 2020, 126쪽.

이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아내로 빙의해 점령해 들어오는 진짜 정체가 악마적인 장인(丈人)이라고 주장하고 아내를 살해한 친구의 이야기인 〈현관 앞에 있는 것〉도 새로 쓰고 있다. 우선 〈우주에서 온 색채〉를 읽다보면 지나치기 쉬우나 흥미로운 부분을 여럿 만나는데, 그 부분들은 〈우물 속의 색채〉의 모티프와 소재를 이룬다.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서 우물 근처로 떨어진 괴상한 운석의 빛으로 인해 인간과 동물은 돌연변이가 되거나 퇴화해 죽음을 맞이한다. 〈우주에서 온 색채〉는 보통 장삼이사 농부의 가족과 가족을 퇴화와 죽음으로 몰아넣는 러브크래프트적인 우주적 무관심주의가 정교하게 짜인 성공작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러한 무관심주의의 원환 안에는 여전히 식물과 그 크리처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면밀히 읽지 않으면 〈우주에서 온 색채〉에서 농가 주변의 생명체 가운데 일부 채소를 제외하고는 앓은부채와 범의귀 같은 식물들이 정체모를 우주의 빛으로 거대하게 자라거나 기괴하게 변이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말 것이다. 아컴은 ‘악마의 땅’으로 보이지만, 원작이든 다시쓰기든 실제로는 온갖 돌연변이 식물이 군락을 이루는 기이한 서식지로 변하는 중이다.³²⁾ 한편으로 나중에 아컴의 불량배들에게 살해당하는 식물학자 여성주인공 ‘나’(호프)가 식물의 크리처로 체화해 그들에게 복수를 가하는 모티프는 〈현관 앞에 있는 것〉의 숨겨진 모티프인 여성 살해를 겨냥한다.

은림의 소설에는 주인공이 미스캐토닉 대학 연구소와 아컴에서 겪는 차별을 누누이 환기하는 한편으로 악마의 땅 아컴에서 발견된 식물에

32) 따라서 〈우물 속의 색채〉의 다시쓰기는 〈우주에서 온 색채〉의 모티프나 소재를 전복하려는 작중의도의 수행과 다르게 원작에 대한 보다 주의 깊은 전경화를 통해서도 가능했을 것이다. 이것은 러브크래프트 소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주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소설에 나타난 몇몇 차별적인 요소를 교정하는 것만으로는 러브크래프트 소설에 대한 다시쓰기가 제대로 수행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대한 묘사에 집중한다. 특히 버섯에 대한 인상적인 세밀화를 읽다보면, 독자는 작가의 묘사가 식물에 대한 낯은 고정관념(수동성, 비이동성 등)에 도전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크툴루의 어원이 땅 밑 존재를 뜻하는 쏘닉(chthonic)이라면, 은림의 소설에서 크툴루는 촉수로 치명적인 점액을 내뿜는 동물 크리처가 아니라 “땅을 받친 거대한 뱀이 버섯처럼 생긴 수만 개의 촉수를 내밀고 있는 것 같은”³³⁾ 식물의 형상에 더 가깝다. 특히 〈우물 속의 색채〉의 ‘변이’ 장은 주의 깊게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장은 작가가 『노래하는 숲』(2014)에서부터 천착해온 공생 식물 크리처(“땅 밑에 거미줄처럼 얽힌 군사로 그들만의 소통 수단을 갖고 있”³⁴⁾는 기이한 식물 크리처)에 대한 공감각적인 묘사를 한층 유려하게 전개하면서 식물 존재의 다수성, 편재성, 유동성, 가소성을 강조한다.³⁵⁾

나는 하나였지만 동시에 여럿이었다. 군들은 어디에나 있다. 식물도 어디에나 있고, 색채도 어디에나 있다. 그것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곳에 있었고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촘촘한 민들레 씨앗이 바람에 확 펼쳐진 것처럼 사방에 존재했다. 식물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인간들의 무지일 뿐, 그들도 필요한 것을 위해 그들만의 속도와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고 이동했다. 지상에서는 빛과 바람과 향기와 소리와 진동 등 인간이 감지조차 할 수 없는 온갖 매개체로, 땅속에서는 밝은 뿌리 눈으로 곤충 냄새와 토양의 밀도와 성분을 감지하고 화합물을 뿌리거나 흡수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주변을 탐험했다. 나는 그들과 똑같으면서도 견고 움직였다. 이 몸은 변하고 있었다. 나는 살아 있고, 진화하고 있었다.³⁶⁾

33) 은림, 〈우물 속의 색채〉, 『뿌리 없는 별들』, 알마, 2020, 47쪽.

34) 은림, 『환상진화가』, 『노래하는 숲』, 온우주, 2014, 205쪽.

35) 루스 이리가레·마이클 마더, 『식물의 사유』, 이명호·김지은 옮김, 알렘, 2020, 175-180쪽.

36) 은림, 〈우물 속의 색채〉, 『뿌리 없는 별들』, 알마, 100-108쪽. 부분적으로 생략하면서

한편으로 해러웨이의 학문적 동료인 인류학자 애나 칭은 『포용의 예술, 또는 버섯을 사랑하는 방법』의 첫 문단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는데, 다음의 문장들은 은림의 소설과 조목조목 공명한다. “다음에 숲을 걸을 때 아래를 내려다보라. 당신의 발아래 도시가 있다. 만일 어떻게든 지구 아래로 내려간다면, 당신은 그 도시의 거미줄과 필라멘트 건축에 둘러싸여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곰팡이는 이 거미줄을 나무뿌리와 상호작용하게 하면서 균과 균근으로 불리는 뿌리의 관절구조를 형성한다. 균사체 거미줄은 나무와 나무를 숲의 얽힘으로 연결한다. 이 도시는 활기찬 행위와 상호작용의 현장이다.”³⁷⁾ 그리하여 〈우물 속의 색채〉의 아킴은 우주에서 온 빛으로 변해버린 저주받은 악마의 땅이 아니라 주인 공이 식물로 변이되고 그 안에서 보호받는 기이한 식물 군락지이자 피난처(refuge)가 된다. 소설은 아킴에서 일어난 식물 괴담을 옛이야기로 전승하는 서사적 장치로 마무리 지으면서 생명체의 외계기원설인 범종설(panspermia)의 모티프를 활용하여 버섯 등의 포자를 우주선에 실어 나르는 장면으로 끝난다.

마지막으로 김보영의 『역병의 바다』는 러브크래프트 소설에 대한 다시쓰기의 성취가 형식의 숨겨진 재배치의 결과임을 입증하는 소설이다. 소설은 감염연구원 하우진이 감염병 격리지역인 해원마을을 탐사하고 돌아와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서장과 종장에, 조카 현이와 주인공인 ‘나’(서무영)가 해원마을로 여행을 떠나기 직전의 에피소드를 프롤로그에, 그리고 ‘동해병’으로 고립된 해원마을에서 자경단원으로 사는 주인공의 긴 운명의 하루를 가장 분량이 많은 본문에 배치한다. 이러한

인용함.

37) A. Tsing, “Arts of Inclusion, or How to Love a Mushroom”, *Mānoa*, Vol.22 No.2,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0, p.191.

배치는 문제적이다. 『역병의 바다』는 러브크래프트적인 크리처의 역할 (우주적 무관심주의)을 수용하는 한편으로, 이 소설이 고쳐 쓰고자 하는 〈인스머스의 그림자〉에서 그러하듯이, 집단적인 퇴화를 겪고 광기의 집회를 열며 외부인을 위협하는 인스머스 마을사람들에 대한 인종공포와 혐오가 다분히 피상적임을 지적한다. 소설의 서장과 종장에 나타난 서우진의 광기와 공포(외계종족의 부활과 더러운 유전자에 대한 공포 등)는 그가 고작 하루 동안 해원마을에서 지내며 얻은 피상적인 정보와 두려움, 선입관의 합계이다. 『역병의 바다』는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서 괴물과 이계를 목격하고 증언하는 화자, ‘신뢰할 수 없는 화자’를 내세우는 일이 해원마을에 오랫동안 기거하고 변이된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서무영과 같은 존재가 삭제되는 곳에서 비롯되었음을 환기하고 있다. 소설의 후반부, 바다에서 올라오는 양서(兩棲) 괴물은 어떠한 인간적 이해와 관심을 벗어나 있지만 인간의 편에서 볼 때 ‘무심한 악의’를 체현한 듯한 러브크래프트의 크리처인 데이곤(또는 크툴루)에 가깝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 괴물에 맞서 무심함과 초연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물려서지 않고 응시한다.

그것의 몸통이는 바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쳐져 있었다. 미끈미끈한 피부는 과장망측한 물질로 뒤덮여 있었고, 지느러미와 물갈퀴와 깃털과 날개가 태산 같은 등에 돌아 있었다. 그리고 그 깊고 무정한 눈에는 심해 바닥과도 같은 심연이 잠겨 있었다. 저것은 화산이 터지고 바다가 뒤틀렸던 그날부터 저기에 있었다. 인간의 초라한 감각으로 인지할 수 없었을 뿐. 하지만 물고기들은, 새들은, 벌레와 조개들은 다 알았을 것이다. 알았기에 공포를 견디다 못해 해안가로 몰려와 죽는 길을 택했을 것이다. 감염으로 신체가 변화한 이들도 알았을 것이다. 나는 입가에 미소마저 띄우며 더할 나위 없는 확신으로 중얼거렸다. 역병은 바로 네놈이 퍼트리고 있

었다는 것을. 네놈의 무심한 악의에서 병이 쏟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거기 버티고 앉아서 우리를 제 종족으로 바꿔놓고 있었다는 것을. 가라, 이 괴물아.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가라.³⁸⁾

팬데믹 사태 이전에 쓰여졌지만 소설의 동시대적인 울림은 크다. “눈이 유달리 크고 붉고, 털도 듬성듬성 빠져 있”으며, “날개 관절이 변형되어 날지 못하는”³⁹⁾ 재갈매기의 이미지 등 『역병의 바다』에는 해수면 상승, 지진 등의 기후변화와 지각변동, 생태계 파괴 그리고 그로 인한 폐허의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다. 무엇보다 소설은 타자, 소설을 읽으면서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난민이주자들에 들러붙은 공포와 혐오를 상대화하는데 주력한다. 〈인스머스의 그림자〉에 등장하는 마을사람들과 집회의 분위기는 『역병의 바다』에서도 어느 정도 환기되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마을사람들의 비밀집회는 바다에서 올라온 죽은 괴생명체에 대한 합동 애도였다. 끔찍하게 변이된 마을사람들은 다만 고통과 차별에 시달렸던 것만은 아니다. 그들은 해저에서 올라온 “초록색 피부에 지느러미와 물갈퀴를 단 것들”⁴⁰⁾과 동숙하고 있었다. 앞서 이서영과 은림의 소설에 나타난 공생 모티프는 『역병의 바다』에서 “비인간적인 존재에 대한 긍정이며, 다른 하나는 비인간적 존재와 고통을 나누고 서로를 돌봄으로써 인간이 다른 존재로 변이하는 것에 대한 수락”⁴¹⁾으로 표현된다. 결론적으로 세 작가 모두 공생의 모티프와 소재 변용을 통해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을 동시대 현실의 맥락에 맞게 다시 고쳐 쓰고 있다고 하겠다.

38) 김보영, 『역병의 바다』, 알마, 2020, 141-142쪽.

39) 김보영, 『역병의 바다』, 알마, 2020, 40쪽.

40) 김보영, 『역병의 바다』, 알마, 2020, 118쪽. 부분적으로 생략하면서 인용함.

41) 복도훈, 「러브크래프트를 전복하는 러브크래프트」, 『웹진 크로스로드』 179호, 2020.

5. 결론: 또다른 러브크래프트를 향하여

러브크래프트라는 ‘장르’는 광대하고 심원하다. 게임에서 영화, 인류 세 생태학에 이르기까지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은 오늘날 무수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의 우주적 무관심주의, 인간을 우주와 마찬가지로 소립자로 간주하는 도저한 유물론, 고독과 질병 그리고 가난으로 점철된 생애, 격변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문화적 동질성을 고수하면서 혼종과 변화를 두려워한 인종주의 등 러브크래프트와 그의 작품을 수식하는 용어들은 때론 서로 충돌하고 역동하는 모순을 구성한다. 이 글은 러브크래프트의 소설과 그가 낳은 유명한 캐릭터, 온갖 크리처들, 우주적 무관심주의에서 인종혐오에 이르는 세계관이 부딪히는 역학의 장 일부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한국 SF 작가들의 다시쓰기인 『Project LC, RC』 시리즈들 가운데 이서영의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은림의 〈우물 속의 색채〉 그리고 김보영의 『역병의 바다』를 분석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설에서 드라마에 걸쳐 일어나는 러브크래프트 다시쓰기(recreate/rewriting)의 움직임은 러브크래프트의 논란 많은 인종주의나 여성혐오에 대한 여성주의적이고도 탈인종주의적인 해석과 창작의 유행으로만 간주할 수는 없다.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최소한 러브크래프트 소설의 개방성은 그의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글은 러브크래프트의 소설 장르가 가진 특유의 개방성과 역동성, 다른 장르로까지 파급력 있는 ‘독립적인 존재들, 캐릭터들, 공식들’의 형식적 가능성에 주목하여 『Project LC, RC』에서 시도한 다시쓰기의 의미와 의의, 한계와 가치를 평가하고자 했다.

이 글은 『Project LC, RC』의 다시쓰기를 고찰하면서 러브크래프트 소설에 나타난 인종주의적·반여성주의적인 한계를 짚어냈지만, 이와 관

런해서도 숙고할 만한 이의제기가 있음을 거듭 상기하고 싶다. 니저맨(nigger man)이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사랑했던 러브크래프트는 한 편지에 ‘나는 원숭이, 인간, 캄둥이, 소, 양, 또는 익룡을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개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쓴 적이 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다만 러브크래프트의 인종주의의 악명 높은 증거로만 활용되는 것일까. 그의 인종주의를 신중하게 검토하면서도 ‘원숭이, 인간, 캄둥이, 소, 양, 익룡, 개’와 같은 러브크래프트의 기이한 분류법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종의 계열에서 상대화시키고 있음에 주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러브크래프트의 크툴루 또한 다만 ‘문어와 용과 인간의 모습’의 조합, 남근적인 축수를 가진 두족류 동물의 이미지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크툴루는 그것의 실체와 그에 대한 묘사 사이의 메울 수 없는 간격을 개방하는 매우 비밀스런 존재이며,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비유클리드 기하학, 미래파 예술의 견지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크리처이다.

그렇게 이 글에서 논의하지 않은 다른 러브크래프트가 더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코로나19바이러스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면서 바이러스라는 원형 행위자에 대한 인간의 공포가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가 더는 인간이 아니라는 데서 오는 러브크래프트적인 공포임을 얼마간 암시했다. 그런데 이러한 공포는 다만 인간 정신의 사지를 꼼짝 못하게 마비시키는 것으로 머물 수만은 없다는 점에서 교훈적이기도 하다.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서 식물적·동물적 크리처는 인간 신체와 정신에 침투해 실체로서의 인간을 분해하고 다른 존재로 변이시킨다는 점에서 공통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의 소설에서 인간 신체와 정신은 감염을 통해 이질적인 것의 침투가 용이하게 개방된 다공적인(porous) 존재로 드러나며, 감염의 숙주가 되어 다른 인간 신체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가소적인(plastic) 생명체가 된다. 러브크래프트의 호러 생물학은 코로나

19바이러스에 대해 인간이 품고 있는 알기 힘든 공포감을 설명해준다. 뿐만 아니라 그 공포감은 실체와 주체로서 굳건했던 인간의 지위가 바이러스 숙주와 인간-바이러스 매개로 환원되면서 극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는 전략을 겪고 있는데서 오는 것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러브크래프트, 호러 생물학 나아가 호러 생태학의 견지에서 해석될 수 있는 러브크래프트적인 장르가 가진 힘이 아닐까. 이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을 빌려 이야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H. P. 러브크래프트 전집(1-6), 정진영 옮김, 황금가지, 2009-2015.
『Project LC, RC』 시리즈, 알마, 2020.
김보영, 『역병의 바다』, 알마, 2020.
김성일, 『별들의 노래』, 알마, 2020.
송경아, 『우모리 하늘신발』, 알마, 2020.
이서영,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알마, 2020.
이수현, 『외계 신장』, 알마, 2020.
은 림·박성환, 『뿌리 없는 별들』, 알마, 2020.
최재훈, 『친구의 부름』, 알마, 2020.
홍지운, 『악의와 공포의 용은 익히 아는 자여라』, 알마, 2020.

2. 논문과 단행본

- 김홍중, 「코로나19와 사회이론」, 『한국사회학』 제54집 3호, 한국사회학회, 2020, 163-187쪽.
복도훈, 「밤의 공포보다 긴 측수들」, 『자음과모음』 2020년 여름호, 96-109쪽.
_____, 「러브크래프트를 전복하는 러브크래프트」, 『웹진 크로스로드』 179호, 2020.
_____, 「2020년, 호러 한국」, 『문학사상』 2020년 9월호, 10-23쪽.
도나 해러웨이, 「인류세, 자본세, 대농장세, 툴루세—친족 만들기」, 김상민 옮김, 『문화과학』 2019년 봄호, 162-173쪽.
로버트 맥팔레인, 『언더랜드』, 조은영 옮김, 소소의책, 2020.
루스 이리가레·마이클 마더, 『식물의 사유』, 이명호·김지은 옮김, 알렙, 2020.
마크 피셔, 『기이한 것과 으스스한 것』, 안현주 옮김, 구픽, 2019.
미셸 우엘벵, 『러브크래프트: 세상에 맞서, 삶에 맞서』, 이채영 옮김, 필로소픽, 2021.
맷 러프, 『러브크래프트 컨트리』, 소슬기 옮김, 은행나무, 2021.
아마노우치 가즈야, 『조용한 공포로 다가온 바이러스』, 오시연 옮김, 하이픈, 2020.
얼 C. 앨리스, 『인류세』, 김용진·박범순 옮김, 교유서가, 2021.
은 림, 『환상진화가』, 『노래하는 숲』, 온우주, 2014.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천 개의 고원』, 김재인 옮김, 새물결, 2001.
찰스 다윈, 『종의 기원』, 장대익 옮김, 사이언스북스, 2019.
최유미, 『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도서출판b, 2020.

H. P. 러브크래프트, 『공포 문학의 매혹』, 홍인수 옮김, 북스피어, 2012.

Harman, Graham, "On the Horror of Phenomenology: Lovecraft and Husserl", *Collapse Vol. IV: Concept Horror*, Robin Mackay (ed.), Urbanomic, 2010, pp.332-364.

Joshi, S. T., *I am Providence: The Life and Times of H. P. Lovecraft*, Hippocampus Press, 2013.

Miéville, China, "Introduction", *At the Mountains of Madness: The Definitive Edition*, New York: The Modern Library, 2005.

Sederholm, Carl H. & Jeffrey Andrew Weinstock (eds.), *The Age of Lovecraf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6.

Thacker, Eugene, *In the Dust of This Planet: Horror of Philosophy Vol.1*, Zero Books, 2011.

Tsing, Anna Lowenhaupt, "Arts of Inclusion, or How to Love a Mushroom", *Mānoa*, Vol.22 No.2,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0, pp.191-203.

Wilson, Edmund, "Tales of the Marvellous and the Ridiculous", *Classics and Commercials: A literary Chronicle of the Forties*, New York: Farrar Straus & Company, 1950.

Woodard, Ben, *Slime Dynamics: Generation, Mutation, and the Creep of Life*, Zero Books, 2012.

3. 기타자료

Lovecraft, H. P., "Notes on Writing Weird Fiction."

<http://www.hplovecraft.com/writings/texts/essays/nwwf.aspx>. (The H. P. Lovecraft Archive)

Abstract

Infection and Mutation

– On the H. P. Lovecraft’s fiction and “Project LC, RC”

Bok, Do-Hoon(Seoul National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article describes the fear of infection through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rapid phase change of human species with H. P. Lovecraft’s fiction and “Project LC, RC”. Pandemic and climate change, which can be called global weirding, fundamentally question the status and history of human species in the ecosystem. The horror creature and cosmological indifferentism in Lovecraft’s weird fiction are contemporary in that they help shed light on today’s global weirding. But Lovecraft’s racism allows him to ask mor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logic of his cosmic horror. “Project LC, RC” are a Korean writers’s works of cultural variation that rewrites controversial racism and misogyny in Lovecraft’s fiction. Such variation becomes the task of creating a mutation in Lovecraft as it becomes infected with the affection of Lovecraft’s writing. This article first noted the creative power of Lovecraft’s fiction that induces such a mutation. And under this premise, this article wanted to reveal the meaning of Lee Seo young, Eun rim, and Kim Bo young’s recreates of Lovecraft’s fiction through the analysis of images and motifs of abject, plant creature and symbiosis. Specifically, Lovecraft’s creature, which evokes phallic fear, turns into an image of an abject embracing and comforting women’s despair(“I Want You to Stay Low”), a plant creature that provides women with refuge(“Color in the Well”), and a creature of care and symbiotic life(“A Sea of Plague”). This recreate/rewriting has contemporary significance in that it embodies values such as labor, care, and solidarity in their works. The conclusion noted another power of creative variation in Lovecraft’s fiction, which is not reduced to recreate/rewriting.

(Keywords: infection, mutation/variation, weird, recreate/rewriting, horror, hatred)

44 대중서사연구 제27권 2호

논문투고일 : 2021년 5월 10일

심사완료일 : 2021년 6월 4일

수정완료일 : 2021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 : 2021년 6월 14일